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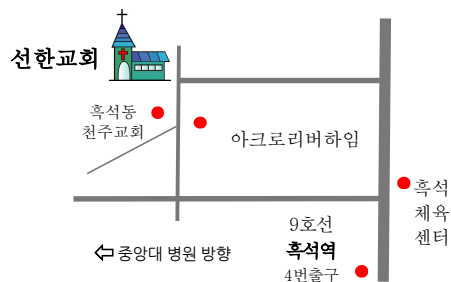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비전워십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안나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장 로	조계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편도선,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엡 5:10)
 Carefully determine what pleases the Lord

실 천 사 항 영의 일을 생각하기 기쁨으로 섬기기 복음 전하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7)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00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부)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19장 (통일찬송가 44장)	
교 독 문	교독문 3번 (시편 4편)	
찬 양 과 경 배	151장 (통일찬송가 138장)	
기 도	이태수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2장 1~7절	삼하 3:31~37
설 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임춘배 목사)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최성규 청년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지어져 가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커피브레이크 모임

주일 오후				오후 3:30	사회: 조계승 장로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구영서 집사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9장 26~31절	
설		교		든든히 서 가는 교회 (임춘배 목사)	
헌	금	송		여호수아회, 루디아회 / 헌금기도 박대수 집사	
찬		양		620장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설 명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오늘 점심 봉사는 마리아회입니다.
4) 주차 안내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헌 신 예 배

오늘 오후 예배는 제직헌신예배로 드립니다.
3. 설 명 절
예 배 안 내

명절 기간 동안 새벽예배(27~30일)와 수요일예배(29일)는 없습니다.
설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부 서 별
사 역 조 정

2월 2일(주일) 2부 예배 후 사역조정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유 초 등 부
겨 울 성 경 학 교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주제 :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기간 : 2/2(주일)~2/23(주일) 4주간 / 오전 11시~4시 30분
장소 : 선한교회 지하2층 유초등부
6. 기 부 금 영 수 증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교정하는 신실한 삶이 되도록.

찬송 :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통509)

말씀 : 성경에서 가장 가슴 떨리는 구절을 고르라면 오늘 본문 13절을 뽑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죽음이 문턱까지 와 있는 오늘이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오늘이며 다시는 없을 최악의 오늘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모세의 외침을 보십시오.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운데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삶을 견지해야 합니다. 어떤 환란이나 시험이나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천 삶의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며 가만히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함께하심을 알고 믿고 느끼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렵지 않았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의 칼날 앞에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밤이 새도록 서 있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며 혼비백산한 상황인데 모세는 아무 미동이나 요동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두렵다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던 때가 군대에서였습니다. 초소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앉는 순간 허리가 굽어지는 느낌과 함께 하반신이 마비되고 숨도 쉬어지지 않는 겁니다. 순간 ‘뭔가 큰일 났다’고 직감했고 미친 듯한 통증과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죽나 보다’ 하며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주여”라고 외치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 나를 지켜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오직 모세만이 그 평안을 누리며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평안을 누리며 어지러운 상황이나 경제적 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것에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며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행 27:25) 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 드립니다.

제 목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 2:1~7)

서 론 소아시아 일곱개 교회 중 에베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1. 에베소 교회의 상태

- (1) 편지의 구조: ①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②주님의 칭찬 ③주님의 책망 ④주님의 경고 ⑤주님의 약속
- (2)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①‘오른 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1절) ②‘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2절)
- (3) 주님의 칭찬: ①‘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2절)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6절) ②‘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3절)
- (4) 주님의 책망: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4절)
- (5) 주님의 경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5절)
- (6) 주님의 약속: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7절)

본 론

2. 교훈

- (1)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은?
- (2) 에베소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 (3)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 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이태수 장로	윤호중 장로
2부 예배 헌금	박대수 집사	윤국로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구영서 집사	오세일 권사
주 방 봉 사	마리아회	요셉회

매일 Q.T.		정죄의 돌을 버리고 사랑과 용납으로	날짜 : 1월 27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본문	요한복음 7:53~8:11		
말씀요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그 여자를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모두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묵상질문 1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 7:53~8:5 종교 지도자들이 죄의 현장에서 잡아 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운 의도는 무엇인가요? 나는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정죄한 적은 없나요?		
묵상질문 2	예수님의 답변 8:6~11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던 이들이 모두 떠나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죄의 돌을 버리고 내가 용납하고 보듬어야 하는 지체는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요한복음 8장 6,11절 예수님은 죄인 편에 서십니다. 간음한 여인과 회중 앞에서 예수님이 땅에 '두 번' 쓰신 것은(6, 8절) 하나님이 두 번 쓰신 십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출 34:1).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죄를 저지른 백성을 위해 모세가 중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긴 죄인임에도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붙들려 온 여인의 모습에서 저를 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을 기억하며,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예수님의 지혜와 용서”	
찬양과 기도	시험받을 때에 (새 343),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묵상 나눔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응하시고, 잘못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야기 속으로	이밀(李密)이라는 중국 진나라 시대의 걸출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중국 삼국시대의 촉한이 멸망하고 진무제 사마염이 진나라로 통일하면서, 사마염은 이밀을 중요한 직책이었던 태자세마(太子洗馬)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밀은 병든 할머니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지만, 일찍이 부모를 잃고 외롭고 약한 자기를 몸소 키워 주신 할머니를 당연히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마염은 포기하지 않고 이밀에게 계속 요청했습니다. 이밀은 긴 글을 써서 자기가 왜 거절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사용한 용어가 바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을 일컫는 이 표현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일도 있지만, 난감할 때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아닌 제삼의 길이 보이면 좋겠지만, 그조차 차단되어 있을 때는 참으로 막막합니다. 이렇게 행동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행동해도 문제가 되는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나요?
말씀나누기	요한복음 7:53~8:11
묵상포인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려 계속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번번이 지혜롭게 대처해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로 충만한 분이심을 보여 줍니다. 지혜로우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죄지는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며, 죄에서 떠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죄를 멀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관찰과묵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어떻게 할지 묻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8:6~8) 고발하던 이들이 다 떠나간 후,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10~11절)
적용하기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져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아들	날짜 : 1월 31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본문	요한복음 8:48~59		
말씀요약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신을 그들이 무시한다 하십니다. 자기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신 예수님께 그들은 이미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한다고 답하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묵상질문 1	무시당하시는 예수님 8:48~51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모욕했나요? 상대방을 선택 의도로 대했는데 오히려 모욕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묵상질문 2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 8:52~59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일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한절묵상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평판,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것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워지는 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갖은 모욕과 헐박에도 말씀을 전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던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꺾이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제 영광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매일 Q.T.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짜 : 1월 28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본문	요한복음 8:12~20		
말씀요약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하시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위한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도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분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세상의 빛, 생명의 빛 8:12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때는 언제였나요? 내게 있는 어둠의 속성은 무엇이며, 이를 물리칠 방법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 8:13~20 적대적인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을 어떻게 변론하셨나요? 주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내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절묵상	요한복음 8장 12절 초막절에는 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설교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라는 뜻입니다(1:4).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세상의 빛이신 주님, 참혹한 어둠에 빠진 저를 부르셔서 생명의 빛을 밝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협이 거세어도 어디서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다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매일 Q.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	날짜 : 1월 29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본문	요한복음 8:21~30		
말씀요약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에 그들이 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 올려질 때에야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묵상질문 1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는 이유 8:21~27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족과 동료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내가 도울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이유 8:28~30 하나님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면 내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한절묵상	요한복음 8장 25~2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1:1), 그분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주님을 믿게 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거듭 말씀하시는 진리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 가는 환희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매일 Q.T.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날짜 : 1월 30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본문	요한복음 8:31~47		
말씀요약	예수님이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종이 된 것이 없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죄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그들에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질문 1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31~32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내가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하나님 아들인가, 죄의 종인가 8:33~47 하나님 아들과 죄의 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면 나는 무엇을 멀리해야 하나요?		
한절묵상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속한 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성도 수의 감소가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진정한 자유는 진리이신 주님을 깊이 알아 가고, 주님 안에 친밀히 거하며, 주님과 즐거이 동행할 때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죄에 종노릇 하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 매여 주님을 온전히 닮아 가게 하소서.		